

# 관찰자의 종교와 가치관이 가톨릭 사제복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ceiver's Variables(value and religion) on the  
Impression of Korean Catholic Priest's Ritual Dress

우송정보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김 광 경  
가톨릭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조 정 미  
장안대학 의상학과  
강사 남 미 우

Dep. of Fashion Design, Woosong Information College  
Prof. : Kwangkyung kim

Clothing and Textiles Majo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resspond Author  
Associate Prof. : Jungmee Cho

Dep. of Clothing and Textiles, Jangahn College  
Instructor : Miwo Na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perceivers' value and religions on the impression of Korean catholic priest's ritual dress.

The subject consisted of 415 undergraduated students.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3type color photographs stimuli of catholic priest model and 7-point sementic differential scale composed of 49 bipolar adjectives representing personal traits. Perceivers were differenciated by AVL test.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The major findings drawn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Four factors( openness, religious nature, potency, characteristics of apperance) emerged to account for the dimentional structure of the impression of priest's ritual dress. 2) The ritual dress and perceivers religion had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ession of the priest. The ritual dress had an effect on openness and potency while the religious of perceivers affected

religious symbolism and potency. Black suit with Roman collar and soutan were seen more authoritative, strong and independent than liturgical vestments. Catholic group saw priest with ritual dress more pure and potent than the other religious groups. 3) The ritual dress and perceiver's value had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ession of the priest. The ritual dress had an effect on openness, potency and the value had an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n potency. The group with political value perceived the priest with soutan more potent than black suit with Roman collar and liturgical vestments.

Therefore the ritual dress and perceivers' value/religion had significant effect on Korean priest impression of openness, religious nature, potency. Research had also shown the similarity-attraction hypothesis which the individuals who hold similar characteristics are more likely to be attracted.

## I. 서론

종교란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인간이 경외하는 일의 총체적인 체계로서(이희승, 1998)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내면적 신성의 표현을 걸어로 나타내는 예식 행위였다. 예식에 있어 집전자와 참여자의 의복은 의례를 심도 있게하며, 이러한 종교복식은 신성과 절대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반 복식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색채와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수도복의 색상은 주로 회색, 검은 색, 흰색 등의 무채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재료는 초기에는 삼베나 아마, 양이나 염소의 가죽 등을 사용하여 가난, 포기, 수덕을 상징했다. 옷의 형태는 온몸을 감싸는 것으로 순종을 의미하며, 일반 복식과는 달리 표현욕이나 장식적 차원을 넘어서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뚜렷하다(황경순, 1988).

일반인들은 종교 복식을 착용한 성직자들을 통하여 일반인과 구분된 복장 그 자체로서 수많은 상징과 암시를 받게 되며 또한 그들이 믿는 신을 연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종교 복식은 신과 인간을 교통하는 메시지를 지니면서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천하여 왔다. 2000년의 전통을 지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같은 형식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를 맞는 현재의 사회 환경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볼 때 종교 복식의 상징성이 어떻게 지각되는지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사제와 수녀들의 제복에는 신성함, 깨끗함, 순수함과 관련된 상징성이 강하게 나

타하는데, Coursey(1973)는 대학생들이 가톨릭 사제들이 착용하는 로만 칼라의 검정 수우트를 도덕적 구속과 사회적 격리의 상징으로 인지함을 발견하였고, Long(1973)은 수녀복이 수녀들의 종교적 헌신의 상징이고, 신도들이 그녀에게 반응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인상 형성에 있어서 착용자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관찰자 또는 지각자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똑같은 의복이라도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관찰자는 나름대로의 흥미, 내적 욕구, 기대가 각각 다르고, 또한 자신의 종교나 독특한 과거 경험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며, 이는 판단 기준과 지각하는 방법 및 수준에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관찰자 변인 중 종교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치관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의복 행동 뿐만 아니라 의복의 인상 형성에서도 종교와 가치관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김제한(1983)은 성격 형성이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종교에 의해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종교적 훈련을 받고 자라면 그의 가치관이 그 종교에 있게 되어 성격 특성도 종교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Brook(1929)는 종교의 역할에 관해 "종교는 가치관, 인격적 관계, 의무감, 고상한 이념을 형성케 하고, 강력한 인격자의 특징을 이루는 자기 억제와 자기 연단을 하는데 종교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관찰자의 종교 및 가치관 특성은 관찰

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관찰자의 영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 종교 복식 중 사제의 일상복과 전례복이 가지는 상징성을 규명하고 또한 관찰자의 종교와 가치관이 가톨릭 종교 복식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쳐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 1) 의복유형과 관찰자의 종교가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 2) 의복유형과 관찰자의 가치관이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는 본 연구에 관련되는 내현성격 이론, 의복과 인상형성, 관찰자의 가치관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 가톨릭 사제복식에 관한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 1. 내현 성격 이론

내현 성격 이론은 인상형성 이론의 하나로서, Bruner와 Tagiuri(1954)가 부분적인 정보인 개별적 특질 정보가 타인이라 사회적 자극에서 주어지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성격특질들을 보충하여 그 사람에 대한 성격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같은 성격 판단이 가능하려면 어떤 성격 특질을 갖는 사람은 특정한 기타 여러 성격특질들을 함께 갖는다는 성격 판단의 틀을 미리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 성격 판단의 기초가 되는 틀을 내현성격 이론이라 한다(정양은, 1982).

내현성격 이론에서 인간은 복잡한 인지적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어진 정보로부터 바로 추리에 들어가며, 이는 내재된 특질간의 상호관련성에 의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Schneider 그 외, 1979).

내현성격 이론은 사회화를 통하여 습득되고, 개인이 성숙함에 따라 현격하게 복잡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현성격 이론은 지각자가 인상들을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범주화란 자극물을 접했을 때 즉각적, 자발적,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유목화 작업이며(Cantor와 Mischell, 1977), 그 결과 자극물의 복잡성을 줄이고 조직화하므로 정보처리를 신속하게 한다(Hamilton, 1979).

Allport(1954)는 범주화와 관련된 고정된 신념을 고정관념이라 했고, 고정관념은 집단에 관한 일반인의 내현성격 이론으로서 어떤 집단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한 세트의 신념이며, 이러한 신념은 임의적인 사회규범에 의해 정의된다.

### 2. 의복과 인상 형성

의복에 대한 인상 형성 연구는 의복의 형태나 색채를 통해 지각되는 인상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 복식이나 제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의복과 인상 형성 연구들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amid(1968)는 의복 스타일에 관련된 일관된 특질, 즉 고정 관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고정관념의 특성은 얼굴의 인상 보다는 의복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Hoult(1954), Douty(1963) 등은 같은 사람이라도 착용한 의복유형에 따라 착용자의 태도 가치관 및 성격특성은 다르게 지각 된다고 보고하였다. 의복의 형태 중 보수적인 의복은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이고 권위적이며 전문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Butler와 Rossel(1989)의 연구에서 격식을 차린 보수적인 형태의 의복을 착용한 교사는 접근이 어렵고 재미가 없으며, 숙제를 내주는 권위 있는 선생님의 외모로 지각 되었고,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낮으며, Thurston등(1990)의 연구에서도 전문적인 이미지는 드레스 보다는 슈트의 형태라고 보고하였다. 남성복을 대상으로한 Bell(1991)의 연구

에서도 보수적인 스타일은 지적인 이미지를, 남미우(1992)의 연구에서도 격식차린 형태인 정장은 품위 있고, 호감이 가며, 지적이고, 눈에 띄고, 외향적이며, 비활동적이고 권위적인 인상을 주었다. 종교 복식에 관한 연구에서 남미우, 조정미(1997)의 수녀복에 관한 인상 형성 연구 결과 전통적인 수녀복은 가장 경직된 인상을, blous/skirt는 가장 순수한 인상을 blouse/pants는 가장 능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머리 모양은 특히 경직성의 인상에만 영향을 미쳤고 의복유형 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수녀의 베일은 가장 경직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 복식에 있어 색채는 신과 연결된 상징으로 사용되며 종교적 우의와 결합하여 신성함을 표시하는 중개적인 역할을 해왔다. 백색은 순결, 청색은 신성, 적색은 신의 사랑, 심홍색은 존귀함, 황색은 풍요로움, 금색은 덕, 녹색은 영원한 청춘, 자색은 겸양 등의 의미가 있어 중세시대 종교화를 보면 성모마리아는 청색 의에 적색 망토를 입고 있는데 이는 신의 신성과 신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런 종교적 의미는 일반화 되어 색채연상 또는 색채의 상징성에 영향을 미쳐 흰색의 경우 순결, 신성과 청초함의 상징이나 의복에 사용될 경우 재질이나 배색 사용자에 따라 값싸게 보이거나 불결하게 보이기도 하며, 검정색은 신비, 정적, 엄숙성의 상징이며 의복에서는 침묵, 불길, 슬픔의 색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의복의 검정색은 사용 방법에 따라 고상한 의복 색이 되기도 하고, 음침하거나 나이든 사람과도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한다(Noriyuki, 1977). 인상 형성 연구에서 색상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남미우, 조정미(1997)의 연구에서도 색상의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감색과 검정색 수녀복 착용자는 회색 착용자 보다 시대에 맞고 보기 좋으며 투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 되었다.

### 3. 관찰자의 가치관에 따른 인상 형성 연구

인상 형성의 내용은 지각자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는 지각자 또는 관찰자에 따라 판단 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각자 변인에는 지각자의 신

체적 특성(시각이나 청각의 정확성), 심리적 특성(목적, 가치관, 성격), 인지적 구조(기억, 지식)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각자 변인은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적다.

일반적으로 가치는 개인에게 있어서 행동의 목적, 수단, 방법 등에 관하여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뜻하며(김종철, 1970), 여러 가능한 행동 중에서 선택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므로(고용복, 1970) 각 사람의 문화적 혹은 가정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Thomas와 Znaniecki(1918)는 가치관이란, 가치가 체계화 되고 내면화 되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지각자 변인으로 개인의 가치관은 지각의 방향 즉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Allport는 개인의 기본적인 가치관의 방향을 성격의 중요한 한 측면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기본적 가치관 차원들을 확인하고 측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가치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모형을 찾는 것이었으며, 그는 Spranger의 Types of Men에서 그 모형을 찾았다. 이 개념은 인간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6개의 가치관은 서로 정도는 다르나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며, 서로 다른 유형의 가치관의 배합이 개개인의 삶에서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찰자의 가치관이나 종교에 따른 인상 형성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으므로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 그리고 의복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ewman, Nickerson과 Bryer는 AVL(Allport-Vernon-Lindzey)검사를 사용하여 의복에 대한 관심을 연구한 결과 여성의 경우에 경제적, 심미적, 정치적 가치관이 높으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치관과 의복관심 사이에는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Ryan(1966), Creekmore(1963)는 가치지향성 및 욕구와 의복행동을 연결시켜 연구한 결과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관리성에 관

심이 높았고, 정치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편안함에 관심이 낮았고,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탐험적 가치관이 높은 경우 의복의 실험성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가치관은 선택적 지각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을 지각할 때 의복 단서의 사용에서 나타난다.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며, 독립적이고 열정적이며, 부끄러움을 덜 타고 개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실증적, 비판적 합리적인 측면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Sharma(1980)는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사물을 유용성이나 실용적 가치 기준으로 보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상품 구매시 낭비하지 않으려는 검소함을 나타내고, 차갑고 엄격하며, 순종적이고, 자부심이 강한, 초연한, 인습적인 등으로 묘사된다. 이론적 가치관은 진실의 발견이나 지식의추구에 대한 흥미와 관련이 있었고, Sharma(1980)는 의복의 안락함에 높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이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특성을 지니며, 의복의 동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가치관은 권력을 얻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계가 있으며, Creekmore(1963)연구에서 정치적 가치관은 의복 흥미의 두 영역 즉 유행 지향성과 지위 상징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가치관은 의복의 정숙성과 관련이 있었고 내면 세계로의 추구 경향이 외모에 무관심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연구들을 보면 Baer와 Morsele(1970)의 수녀복 착용자에 대한 평신도의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진보적인 신앙과 자유주의적인 정치관을 가진 피험자는 수녀복을 입지 않은 피험자를 더 잘 받아드리며, 관습적이고 보수적인 피험자는 전통적인 수녀복을 더 선호 하였다. Chia와 Jih(1994)는 의복 유형(종교적인, casual)에 따른 인상 형성에 지각자의 종교적인 신념(가톨릭, U.S. public, Malaysian)에 의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지각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고정 관념이 나타났는데, 일반 미국인 지각자들은

캐주얼한 의복에 더 호의적이었고, 말레이시아인 지각자들은 캐주얼한 의복을 덜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김광경(1973), 정삼호(1978), 정혜영(1985) 등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경희(1983)는 서울시내 여대생의 의복착용 동기와 가치관을 연구한 결과 착용 동기중 장식성과 과시성은 사회적 가치관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임경복(1995)의 세대별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페미닌/엘레강스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경제적 가치관과 가정적 가치관이 비교적 높았고, 패셔너블/트렌디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경제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포티/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가정적 가치관이 비교적 낮았다. 또한 클래식/보수적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이 종교적 가치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도 가치관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역으로 가치관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변화될 것임을 짐작케 하고 또한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지각하는 데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가톨릭 사제 복식

종교 복식의 역할은 종교의 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여 대부분의 종교 의례에서 성직자들이 일반인과 다른 복장으로 의례를 주관한다. 종교 복식은 이를 착용하고 의례에 임하는 성직자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며 종교 의례에서 성직자의 위상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의례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며 신에 대해 봉헌코자 하는 마음의 가시적인 수단이다(임상임, 김현경, 1998). 가톨릭 사제가 착용하는 복식은 공식적으로 평상복과 전례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평상복은 일상 사목활동 시에 착용하는 사제의 제복(통상적으로 사제복 혹은 신부복으로 칭함)이고, 전례복은 전례 의식(통상적으로 미사라 칭함) 때만 특별히 착용하는 복식이다.

## 1) 평상복

평상시 착용하는 사제복은 수단(soutan)과 수단이 좀더 약식화 된 형태인 로만 칼라의 셔츠를 받쳐입은 신사복 형태를 들 수 있다.

수단이라는 말은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라는 뜻(한국교회사 연구소, 1989)으로 신학생에서부터, 부제, 사제들이 모두 입을 수 있는 성직자의 평상복이다. 색상은 검은색, 흰색, 적색, 진홍색 등이 있다. 흰색은 교황이, 적색이나 진홍색은 추기경이나 주교들이 착용하는 색이고, 평사제들은 주로 검은색을 착용하나 흰색은 계급에 상관없이 여름 철에 착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계급을 나타내는 색상의 띠를 맨다. 수단의 형태는 로만 칼라(roman collar)의 긴 원피스 형태로 길이는 발꿈치까지이다. 치마 부분에 좌우 양옆으로 2개의 주름이 잡혀 있으며, 앞이 완전히 트여 30-40개의 작은 단추가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수단이 나타내는 의미는 하느님, 이웃,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고 속세를 떠났으며, 속세로부터 온 몸을 가린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즉 수단은 자신의 속세적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며 무조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함을 상징하며 기독교의 봉사 정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문선구, 1995, 최상범, 1985).

과거에는 수단이 사제의 평상복으로 엄격히 착용되어져 왔으나 현대에 와서 이 긴길이의 거추장스러운 수단의 착용을 점점 기피함에 따라, 근래에는 미사 때나 특별한 행사시에만 착용하고, 일상 생활이나 사목활동시에는 일반 신사복에 로만 칼라의 셔츠를 받쳐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검은 신사복에 검은 셔츠를 받쳐입는 것이 정식이나, 특별히 격식을 갖추지 않는 자리에서는 신사복이나 셔츠에 회색 등 낮은 무채색 톤의 다양한 색상이 착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제의 평상복에서 일반인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특징적인 요소는 로만 칼라로서 독신과 정결, 성직자의 신분, 그밖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예속되어 있음을 상징한다(최상범, 1985).

## 2) 전례복(典禮服: vestments)

전례(典禮)란 가톨릭에서 행하여지는 종교의식을 말한다. 전례복(典禮服: vestment)이란 전례 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가 교회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는 복식인데 전례복을 착용한 사제의 몸짓과 전례를 위한 동작이나 언어 등의 뒷받침으로 전례의 뜻을 시각적으로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며(손세희, 1976), 일반적으로 제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례복은 성직자가 미사, 성사, 집행, 행렬, 강복등 모든 의식때 교회의 규정에 따라 입는 예복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사제가 경신례를 행할 때는 구약 시대부터 특별한 예복을 입어 왔다. 이는 사제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고, 일상 생활을 떠나 제사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표현하고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로마 전례에 사용되는 전례복은 크게 외부에 입게 되는 비단으로 된 제의와, 내부에 입게 되는 아마포로 된 제의로 나누어진다. 제의, 부제복, 영대는 전자에, 개두포, 장백의는 후자에 속한다(한국 가톨릭 대사전 편찬 위원회, 1989). 일반적으로 주사제는 수단-개두포-장백의-띠-영대-제의의 순으로 착용하고 미사를 집전하게 된다.

사제가 미사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개두포(蓋頭布: amice)는 아마로 된 장방형의 흰 천으로 양쪽에 긴 끈이 달려 있어 어깨 위로 걸치게 된다. 고대 로마인들의 목도리에서 유래된 것으로 후에 로마에서는 성직자들이 장백의를 입을 때는 반드시 개두포를 착용하였다. 현재는 사제가 수단을 입지 않았을 경우 장백의가 평복의 목까지 다 덮지 못할 때 개두포를 착용한다. 린넨으로 제작되며 양쪽 끝에 긴 끈이 달려 있으며 그 가운데 선명하게 십자가가 하나 장식되어 있다(김현, 1982).

장백의(長白衣: alb)는 사제가 미사때 개두포 위에 입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백색의 긴 옷,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의 어깨에서 발등까지 내려오는 소매 없는 튜닉에서 유래되었는데, 로마제국 초기에는 넓은 소매를 달아서 입었다. 오늘날과 같은 장백의가 되기까지 성직자들이 계속해서 착용해 왔는데

수단을 가리기 위해 길이가 길어졌고 무릎을 꿇을 때 용이하도록 폭이 넓어졌다. 장백의의 허리 부분은 띠로 묶어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한다(띠 없이 입을 수 있는 장백의도 있다). 장백의가 평복의 목을 다 덮지 못하면 장백의를 입기 전에 개두포를 착용해야 한다. 장백의를 조금 짧게 변형시킨 중백의로 장백의를 대신할 수 있으나 제의를 입게 될 때와 제의 대신 영대를 하게 될 때, 영대와 함께 부제복을 입을 때는 대신 할 수 없다. 장백의는 사제가 미사 성제 때 가져야 할 육신과 영혼의 결백을 상징한다(최윤환, 1986).

영대(領帶: stole)는 성직자가 자신의 성무 집행의 표시로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긴 띠이다. 영대의 기원은 고대 동방에서 사용하던 술이 달린 화려한 목도리로부터 유래되었다. 4세기에 처음으로 부제들이 명예를 표시하는 휘장으로 사용했고, 주교와 사제들이 목에 걸고 미사를 드렸다. 영대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한 것은 6세기부터 였다. 영대는 길이 2.5미터, 넓이 9센티미터 정도로 제의와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다. 부제는 왼편 어깨에서 오른편 허리 밑으로 매며 사제와 주교는 가슴 앞에서 평행하게 내려 맨다. 고해성사 때는 보라색의 영대를 성체강복과 병자 성사 때는 흰색의 영대를, 강론 때는 그날에 해당하는 제의색과 같은 영대를 하게 된다. 영대는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 성덕의 상징으로 사용된다(최윤환, 1986).

제의(祭衣: chasuble)는 사제가 미사를 집행 할 때 장백의 위에 입을 반수 원형의 옷으로 로마인의 옷(파에놀라, paenula)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소매가 없이 앞뒤로 늘어지게 양옆이 터져 있다. 제의는 예수의 멍에를 상징하고 애덕을 표시한다. 보통 비단이나 벨벳 등의 고귀한 옷감으로 만들어지며 십자가 등의 여러 상징을 자수로 장식한다. 또한 각 典例週年에 따라 그 典例週年이 의미하는 종교적 사건의 상징성을 제의의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색깔은 백색, 적색, 녹색, 자색 그리고 흑색의 5가지 색상이다. 그러나 이들 색상은 시대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점차 허용되는 색깔이 추가 되기도 하며, 금지 또는 특정 교구에만

인정되는 등의 법령으로 규제되기도 한다.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 문제의 규명을 위해 준 실험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의 가설 및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가설 및 측정도구

##### 1) 연구 가설

가설 1: 사제복 유형과 관찰자의 종교는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제복 유형과 관찰자의 가치관은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인상을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 척도, 가치관 척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종교, 전공등)의 총 7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실험 디자인

실험 디자인은 피험자간 설계이며, 사제복 유형(3)×종교유형(4)요인 설계로 구성되며 12개의 소집단에 대하여 응답자 수는 35명씩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 (2) 자극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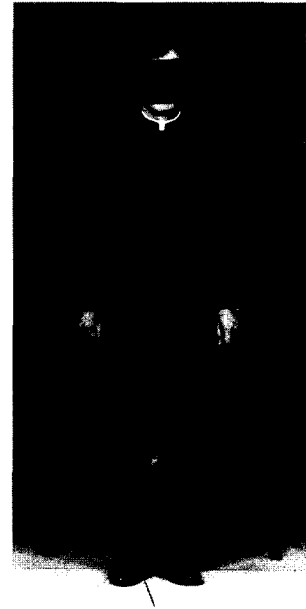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자극물은 가톨릭 사제의 실물 사진으로 제작되었으며, 착용자의 얼굴의 영향을 고려하여 모델은 가장 평범한 인상의 신부님을 모델로 정하였으며, 또한 착용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의 사제복을 모두 동일인이 착용케 하였다. 자극물의 구성은 공식 미사때 착용하는 전례복인 제의 한 종류와 일상 사목 활동 시에 착용하는 사제의 제복(통상적으로 사제복 혹은 신부복으로 칭함) 두 종류로 구성하였다. 제의는 일반적으로 동일 형태에 4가지 색상이 교회력(敎會曆)에 따라 다르게 사용



〈그림 1〉



〈그림 2〉



〈그림 3〉

되나 색상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흰색의 제의를 사용하였다. 사제복은 전통적 격식에 따른 수단과 현대에 와서 보다 약식화된 신사복 형태의 사제복 2가지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실제 측정 시에는 신부님의 얼굴이 노출되었으나 본 학회지 게재시에는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얼굴의 일부를 가렸다.

### (3) 의미미분 척도

자극물 속의 사제복 착용자에 대한 관찰자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등간형 7점 척도로 문헌 조사와 사전 조사 및 예비 조사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여자 대학생 20명에게 제의와 신부복을 착용한 자극물 사진을 보고 인상을 자유 응답하게 한 사전 조사 결과와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형용사 쌍을 토대로 63개의 형용사 쌍을 선택하였다. 이 들중 전문가 집단(의류학 교수 3명)의 평가에 따라 의복 착용자의 인상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한 형용사 쌍 14개를 제외한 49개의 형용사 쌍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60명의 대학생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주성분 모형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2개 이상의 요인 성격을 띤 것, 요인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것, communality가 낮은 것, 다른 형용사쌍과 유사한 것은 본 조사에서 제외 시켜 최종 39개의 형용사 쌍으로 축소되었다.

### (4) 가치관 검사

가치관 검사는 Allport-Vernon-Lindzey의 Study of Values(1960: AVL가치관 검사)를 사용하여 개인의 6가지 기본적 관심 또는 동기에 대한 상대적 두드러짐에 따라 가치관을 측정하였다. AVL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나 설문 문항이 어렵고 문항수가 많은 2부를 제외하고 1부만을 사용하였으며, 응답 방법은 각 질문에 대한 2개의 응답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에 따라 완전 동의는 3과 0, 약간 동의는 2와 1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피험자에 따라 6개의 가치관(경제적, 심미적, 정치적, 종교적, 이론적, 사회적 가치관)의 점수를 산출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가치관에 따라 피험자를 구분하여 집단화하였다.



(5) 인구 통계학적 문항

피험자의 성별, 종교, 연령, 전공을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으로 실험 디자인에 따라 420명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컴퓨터 처리시 잘 못 나온 설문지를 제외한 총 415명(남자 163명, 여자 252명)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피험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분포는 <표 1>과 같다.

자료수집은 1998년 6, 7월에 이루어졌고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디자인(의복유형 3)에 의하여 유층화된 임의 표집을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 의미미분 척도의 결과를 SA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변량분석(SNK)을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톨릭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 요인

가설 검정에 앞서 의미미분 척도에 대한 응답자

<표 1> 인구 통계적 특성 분포

인구통계변인	n · %		
	n	%	
성 별	남	163	39.3
	여	252	60.7
종 교	불 교	94	22.7
	기독교	122	29.4
	카톨릭	99	23.9
	무 교	100	24.0
연 령	20대	395	95.2
	30대	12	2.9
	40대	7	1.7
	50대	1	0.2
전 공	자 연 계	286	68.9
	인 문 계	101	24.3
	예 체능계	28	6.8

들의 평가를 요인 분석하였다. 요인 분석은 3가지 다른 유형의 사제복 착용자에 대해 형성된 인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후속 분석을 위한 적은 수의 변수로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 방법과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도출: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4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제 1요인은 개방성 요인으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제 2요인은 종교적 품성 요인, 제 3요인은 역능성 요인, 제 4요인은 외모 특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네 요인의 cronbach'α를 산출한 결과는 평균 0.87로 나타났다. 한편 두개 이상의 요인 특성을 갖는 형용사쌍(활동적인, 소극적인, 격식을 차린, 지배적인, 진취적인, 강직하지 않은, 냉정하지 않은, 편협한)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가설 검정의 규명을 위한 분석에 사용된 요인 점수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계산하였고, 계산 방법은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의 기여도에 따른 점수 계산법인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다. 요인 점수에 따른 결과 해석에서 요인 1은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적이지 않고, 따뜻하고, 가까이 하기 쉬운 인상을 의미하며, 요인 2는 경건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인상을, 요인 3은 강하고 독립적인 인상을, 요인 4는 소박하고 겸손한 인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3가지 다른 유형의 사제복에 대해서 지각된 인상의 내현 성격 이론 체계는 개방성, 종교적 품성, 역능성, 외모 특성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사제의 인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총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복에 대해 형성되는 인상 차원은 평가, 능력, 활동성으로 구분되고, 이중 가장 중요한 인상 차원이 평가 차원으로 나타나나 종교 복식 특히 사제복에서는 개방성이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중요한 고정 관념적 틀을 형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물이 실제 인물 사진으로서 그림으로 제시하는 line drawing 자극물에 비하여 자극물 속의 인물 효과가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극물에서 실제 사진을 사용했을 경우와 line drawing으로 제시했을 경우의 인물과의

〈표 2〉 사제복 착용자로부터 도출된 인상 요인

요인 1 : 개방성 요인		요인 2 : 종교적 품성 요인		요인 3 : 역능성 요인		요인 4 : 외모 특성 요인	
형용사	부하치	형용사	부하치	형용사	부하치	형용사	부하치
구속적인/자유로운	0.77	경건한/경건치 않은	0.69	우유부단한/ 결단력 있는	0.72	소박하지않은/소박한	0.61
폐쇄적인/개방적인	0.74	신뢰가 가는/ 신뢰가 가지 않는	0.69	여성적인/ 남성적인	0.63	세련된/촌스러운	0.57
어두운/밝은	0.79	성스러운/ 성스럽지 않은	0.66	자의식이 약한/ 자의식이 강한	0.53	사치스런/검소한	0.53
고지식한/ 고지식하지 않은	0.73	품위있는/품위없는	0.65	자신감이 없는/ 자신감이 있는	0.47	토속적인/이국적인	-0.54
무거운/가벼운	0.69	포용적인/ 포용적이지 않은	0.59	독립적인/의존적인	-0.67		
우울한/명랑한	0.66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0.56	강한 약한	-0.74		
따분한/따분하지 않은	0.58	인내하지 않는/ 인내하는	-0.49				
차가운/따뜻한	0.56	근엄하지 않은/근엄한	-0.52				
사무적인/ 사무적이지 않은	0.55	이기적인/ 회생적인	-0.53				
권위적인/ 권위적이지 않은	0.52	겸손하지 않은/겸손한	-0.57				
이성적인/감성적인	0.42	상징적이지 않은/ 상징적인	-0.57				
현대적인/고전적인	-0.45	순수하지 않은/순수한	-0.59				
편한/불편한	-0.54	사려깊지 않은/ 사려깊은	-0.69				
시대에 맞는/ 시대에 뒤떨어진	-0.62						
가까이하기 쉬운/ 가까이하기 어려운	-0.63						
경직되지 않은/경직된	-0.66						
다양한/획일적인	-0.67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9.8%		13.6%		7.9%		4.7%
총 설명력	46%						

복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의미미분 척도로 사용된 형용사쌍의 선택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며, 분석에서 똑같은 이름의 요인으로 묶인 형용사쌍들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된다.

한편 두번째 요인으로 도출된 종교적 품성 요인에서는 사제들의 복식 유형이 일반인과 구분되어 종교에 귀속되어진 신성함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앞서의 수녀복에 대한 연구에서도 순수성이 높은 전통적인 수녀복은 가까이 하기 어렵고 경직된 인상을 주었으며, 가까이하기 쉽고 경직되지 않은 인상을 주는 의복은 순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순수성과 개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복의 색상 또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경건하면서도 가까이 하기 쉬운 사제의 역할을 잘 나타내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사제복 유형과 관찰자의 종교가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정에 앞서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피험자 354명중 불교가 22.7%(94명), 기독교가 29.4%(122명), 가톨릭이 23.9%(99명), 무교가 23.9%(99명)로 분포 되었다.

〈가설 1〉은 사제복의 유형과 관찰자의 종교는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며 이의 검정을 위하여 요인 분석 결과 얻어진 4개 각각

〈표 3〉 사제복 유형과 관찰자의 종교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결과

독립변인	개방성		종교적 품성		역능성		외모 특성	
	F 값	Eta자승값	F 값	Eta자승값	F 값	Eta자승값	F 값	Eta자승값
사제복유형	8.81***	.04	1.32	.00	48.12***	.19	0.15	.00
종교	0.50	.00	9.09***	.06	11.30***	.07	1.28	.00
사제복 유형×종교	1.14	.01	1.77	.02	2.04	.03	1.87	.02

\*P < .05    \*\*P < .01    \*\*\*P < .001

〈표 4〉 사제복 유형과 종교 유형의 인상 요인에서의 평균값

인상 요인의 평균		개방성		종교적 품성		역능성		외모 특성	
사제복유형 및 종교		평균	SNK	평균	SNK	평균	SNK	평균	SNK
사제복유형	약식수트	-0.037	B	-0.07		0.26	A	0.03	
	수 단	-0.225	B	-0.02		0.32	A	-0.02	
	전례복	0.273	A	0.10		-0.61	B	-0.00	
종교	불교	-0.03		0.21	A	0.05	B	-0.17	
	기독교	0.02		-0.03	A	-0.23	C	0.08	
	가톨릭	0.08		-0.39	B	0.40	A	0.03	
	무교	-0.07		0.23	A	-0.16	BC	0.02	

의 요인에 대하여 2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인들의 각 단독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 할 때는 eta 계수 자승값으로 하였고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응답자간의 비교는 평균값에 의하였다. 또, 이들 평균값의 차이는 일원 변량분석과 SNK다중비교검정에 따라 해석하였다.

〈표 3〉은 사제복 유형과 관찰자의 종교가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사제복 유형은 개방성, 역능성 요인에, 관찰자의 종교는 종교적 품성, 역능성 요인에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그중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이 큰 것은 eta계수로 비교해 볼 때 사제복 유형은 개방성, 역능성 요인의 인상에, 관찰자의 종교는 종교적 품성, 역능성 요인의 인상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인상을 평균값으로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로만칼라 셔츠의 수트 및 수단 착용자는 개방성, 역능성 요인에서 전례복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제들의 평상복인 수단과 수단의 약식화된 로만칼라 셔츠의

수트 착용자는 폐쇄적, 권위적이고, 차갑고 가까이 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나 한편 강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로만칼라 셔츠의 수트 착용자와 수단 착용자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의로서 전례복은 로만칼라 셔츠의 수트나 수단 착용자보다 권위적이지 않고 가까이하기 쉽고 따뜻한 인상을 주나 약하고 의존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

사제들이 종교의식 때 착용하는 예복으로서 전례복은 사제가 일반인과 구별되고 미사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표현하고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 착용하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의복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전례복은 개방적인 의복으로서 권위적이지 않으며 따뜻하고 가까이하기 쉬운 인상을 형성하여, 종교적 의식의 거룩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일반인에게 종교적 이념을 더 널리 전파하려는 가톨릭 교회의 이념과는 일치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단과 로만칼라 수트는 사목활동 시에 착용하는 평상복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받치고 속세로부터 몸을 가리고 이웃과 교

회에 봉사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 결과 권위적이며 강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색상의 영향으로 순수, 순결을 나타내는 흰색의 전례복 보다 침묵, 엄숙, 정적 등을 나타내는 검정색의 종교적 품성이 수단과 로만 칼라 슈트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1990)의 연구에서는 검정색의 착용자가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사람으로 지각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검정색의 색채 연상이 검정색에 대한 고정 관념적 인상을 형성하여 침묵, 권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로만 칼라 셔츠의 슈트와 수단 착용자의 인상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두 의복이 모두 로만 칼라와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각자에게는 인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찰자의 종교 유형은 비 순수성, 역능성 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다른 종교 집단(기독교, 불교, 무교)에 비하여 자극물 속의 사제복 착용자를 경건하고 순수하며, 품위 있고, 강하며 독립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을 지각 할 때 대상자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판단하며, 또한 자신과 비슷한 경우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유사성 가정 이론을 지지한다. 즉 유사성의 영향은 문화적 및 인구학적 특징, 태도, 신념, 흥미, 종교, 정치, 사회계층, 교육 수준, 연령, 교양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종교의식때 착용하는 사제복에 대한 인상 형성에서 종교적 신념의 유사성은 사제복에 대하여 좀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3. 사제복 유형과 관찰자의 가치관이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정에 앞서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가치관 분포경향은 <표 5>와 같다. 피험자들의 가치관에 따른 집단 구분은 6개 가치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가치관으로 구분되었으며 2개 이상의 가치관에서 동등한 점수를 나타내는 피험자를 제외하여 총 354명이었다. 가치관의 분포 경향을 보면 대학생들은 미적 가치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피험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의 순이었다.

<가설 2>는 사제복의 유형과 관찰자의 가치관은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며,

<표 5> 피험자들의 가치관 분포

가치관	가치관 점수	점수범위	평균	S. D	N	%
이론적		2 - 27	14.1	3.2	39	11.0
경제적		4 - 25	15.5	3.1	83	23.4
미적		6 - 24	16.6	2.9	120	33.9
사회적		3 - 23	13.9	2.6	69	19.5
정치적		2 - 22	13.5	2.7	21	5.9
종교적		0 - 25	13.9	2.7	2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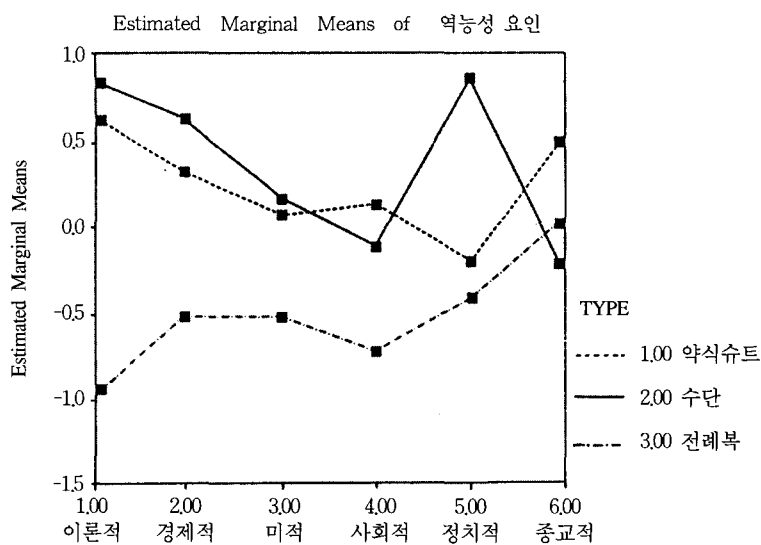
<표 6> 사제복 유형과 가치관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 결과

독립변인	인상요인		개방성		종교적 품성		역능성		외모 특성	
	F 값	Eta 자승값	F 값	Eta 자승값	F 값	Eta 자승값	F 값	Eta 자승값	F 값	Eta 자승값
사제복 유형	3.46*	.02	1.43	.00	21.53**	.11	0.73	.00		
가치관	1.98	.02	1.62	.02	2.41*	.03	1.03	.01		
사제복 유형 × 가치관	0.82	.02	0.88	.02	2.20*	.06	1.30	.03		

\*P < .05    \*\*P < .01

<표 7> 사제복 유형의 인상 요인에서의 평균값

인상요인의 평균 사제복 유형	개방성		종교적 품성		역능성		외모 특성	
	평균값	SNK	평균값	SNK	평균값	SNK	평균값	SNK
약식슈트	-0.01	A	-0.11		0.24	A	0.04	
수 단	-0.22	A	-0.00		0.31	A	-0.03	
전례복	0.29	B	0.10		-0.61	B	0.00	



<그림 4> 역능성 요인의 인상에 대한 사제복 유형과 가치관의 상호작용 효과

인상 요인 4개에 대한 의복 유형과 가치관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Eta계수 자승값으로 하였으며 변량 분석 결과 변인간의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는 그림에 의하여 해석하였고, 각 변인의 수준에 따른 차이는 일원 변량분석과 SNK를 사용하였다.

가설 검정 결과 <표 6>와 같이 사제복 유형은 개방성과 역능성 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치관은 역능성 요인의 인상에, 또한 사제복 유형과 가치관은 상호작용 효과가 역능성 요인의 인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인상을 평균값의 차이로 비교하면 로만 칼라 셔츠의 슈트와 수단이 권위적이며 경직되어 보이나

강하고 독립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 한편 역능성 요인의 인상에 대한 사제복 유형과 가치관의 상호 작용 효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의하면 이론적, 경제적, 미적,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피험자들은 로만 칼라 셔츠의 슈트와 수단이 전례복보다 능력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정치적 가치관집단은 수단을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종교적 가치관 집단에서는 의복 유형에 따른 능력 요인의 인상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에서 정치적 가치관의 경우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수단 착용자를 가장 강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지위 종교적 품성에 관심이 많은 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종교적 가치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피험자들은 인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이 외모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사제복의 유형과 관찰자의 종교나 가치관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응답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준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제복 착용자 인상의 내현 성격 이론 체계는 개방성, 종교적 품성, 순수성, 역능성, 외모 특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제복 유형과 관찰자의 종교는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고, 사제복 유형은 개방성, 역능성에 종교는 종교적 품성과 역능성에 영향을 미쳤고, 개방성, 역능성 인상에는 사제복 유형이, 상징성에는 종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로만 칼라 셔츠의 수트와 수단은 개방성, 역능성 모두에서 전례복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 권위적이고 강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지각 되었고, 한편 가톨릭 집단은 다른 종교 집단과 다르게 사제복 착용자를 순수하고 능력 있게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지각자가 지각 대상과 유사한 경우 호의적으로, 더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유사성 가정 이론을 지지하였다.

셋째, 사제복 유형과 관찰자의 가치관은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으며, 사제복 유형은 개방성, 역능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고, 가치관은 사제복 유형과 상호 작용하여 역능성 요인에만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가치관 집단은 수단을 로만 칼라 셔츠의 수트나 전례복보다 능력 있는 것으로 종교적 가치관 집단은 사제복 유형에 다른 의미있는 인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론적, 경제적, 미

적, 사회적 가치관에서는 로만 칼라 셔츠의 수트와 수단이 전례복보다 능력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사제복의 유형과 관찰자의 종교 및 가치관은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찰자와 지각 대상자간의 유사성은 지각 대상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쳐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성 가정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피험자 연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연구할 수 있고, 둘째로 종교 복식에 사용되는 색상이 일반 복식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지각되는지 차이를 규명해 볼 수 있으며, 셋째로 자극물 제시에 있어 실제 인물 사진과 line drawing으로 제시했을 경우 인상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도 연구 방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넷째 동일한 사제복 유형 안에서 색상에 따른 인상의 차이를 연구해 볼 수 있으며, 다섯째 다른 유형의 제복에 대한 인상을 연구함으로써 직업에서 요구되는 이미지가 제복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이 많아 성별을 나누어 분석치 못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남,여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재미있는 결과가 얻어지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Baer, D.J., Marsele, V.F.(1970), Political and religious belief of catholics and attitudes toward lay dress of sisters, *Journal of Psychology*, 74: 77-83.
- 2) Bell, E.L.(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8-12.
- 3) Butler, S., & Rossel, K(1989), Research note: th influence of dress on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 charaterristics, *Clothing & Textiles*

- Research Journal*, 7(3), 57-59
- 4) Coursey, R.D.(1973), Clothes doth make the man, in the eye of beholder, *Perceptual and Motor Skill*, 36, 1259-1264.
  - 5) Creekmore, A.M.(1963),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PH. 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6) Hamid, P.(1968). Style of Dress as a Perceptual Cue in Impression Form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6, 904-906.
  - 7) Hoult, T. F.(1954), Experimental measurement of clothing as a factor in some social rating of selected american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324-328.
  - 8) Long, T.J.(1978), Influence of uniform and conformity in dress: one dimension or two: *Proceeding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136-137.
  - 9) Ryan, M.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10) Schneider, D.J., Hastorf, A.H. Ellsworth, P.C.(1979) Person perception(2nd ed.) Massachusettes, Addison-Wesley Publishing
  - 11) Sharma, R. S.(1980), Clothing behavior, personality and values: A correlational study, *Psychological Studies*, 25: 137-142.
  - 12)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V.(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139-150.
  - 13) 고영복(1970), 현대 사회심리학, 서울: 범문사.
  - 14) 김광경(1973),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김경희(1983),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 착용 동기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김 현(1982), 전례복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20, 208
  - 17) 김희선(1993), 現在 우리나라 가톨릭 사제복에 나타난 象徴性 研究, 복식문화연구, 창간호, 69-80.
  - 18) 남미우, 조정미(1997),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복과 머리 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4), 757-768
  - 19) 문선구(1995), 수단이 주는 상징적 의미, 나루터, 창간호, 40.
  - 20) 손세희(1976), 가톨릭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 대학원 석사논문, 7.
  - 21) 이기정(1996), 중요교리, 전례용어 해설, 서울:가톨릭 출판사, 166.
  - 22) 이민선, 김민자(1995), 복식에서 성의 가치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의류학회지, 19(2), 340-355.
  - 23) 이희승(1998), 옛센스 국어 사전, 서울: 민중서림.
  - 24) 임경복, 임숙자, 조진숙(1995), 세대별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4).
  - 25) 임상임, 김현경(1998). 종교 복식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I): 고대 이집트를 중심으로, 복식 39호, 21.
  - 26) 정양은(1982), 사회심리학, 서울: 범문사
  - 27) 정혜영(1985), 성인여성의 가치관과 의복 행동과의 관계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최상범(1985) 전례복의 상징에 대하여, 나루터, 창간호, 전주교구신학사회, 30
  - 29) 최윤환(1986), 미사해설, 서울: 가톨릭 출판사, 17
  - 30) 한국 가톨릭 대사전 편찬 위원회(1989),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2판, 서울, 1042.
  - 31)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1983),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559-563.
  - 32) 황경순(1988), 가톨릭 수도복의 변천과 상징적 의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